포덕 163년

신 년 사

포덕 163(2022)년 1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포덕 163년

신 년 사

포덕 163년 1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식 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 문 3 회 병 송
1. 신 년 사
1. 합 동 배 례
1. 천 덕 송 합 창 (공락가)
1. 만 세 삼 창
1. 심 고
1. 폐 식

신 년 사

전국의 동덕 여러분, 포덕 16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한울님의 감응으로 모든 도가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심고합니다.

회고하면 지난해는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구촌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한해였습니다.

우리 교단 역시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 전국 교구에서의 시일식 봉행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도원마저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다보니 많은 교인들이 일상적인 신앙심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주문을 염념불망(念念不忘)하면서 항상 재가기도(在家祈禱)와 수도 수련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포덕 163년을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암울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밝고 희망에 넘치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구나 새해는 현재 우리가 처한 세태를 감안할 때 대내외적으로 발전과 퇴보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단적으로 금년 3월에는 우리 교단이 전국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3년간 교단을 이끌어 갈 교령을 비롯하여 중앙총부의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앞날에 결정적인 전환기가 예고되는 대통령 선거가 역시 3월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포덕 163년 새해는 우리 교단 및 국가의 성쇠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보국안민을 이념으로 하는 우리 전체 교인들은 오만년 무극대도의 중흥과 아울러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울님과 스승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새해는 우리 교단이 다시 현도하는 자세로 교단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단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제도개선과 질적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암성사는 현도 이후 중앙총부를 설치하여 교단체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시운시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국에 8백여 개소의 교리강습소를 개설한데 이어 중앙에 사범강습소를 두어 교리강습소에서 수료한 우수인재를 발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을 전국 최대의 종단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

다. 다시 말하면 교육·연구기관을 통한 교단의 질적 향상만이 교단발전의 핵심과제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하며 나로부터 올바른 행동으로 개벽하여야 합니다.

포덕 163년 새해는 임인년(壬寅年), 즉 범띠해입니다. 우리 교단이 호랑이의 과감한 속성을 교훈삼아 해월신사의 말씀 그대로 무극대도 오만년의 미래를 표준함에 있어 앞서 때를 짓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야 하며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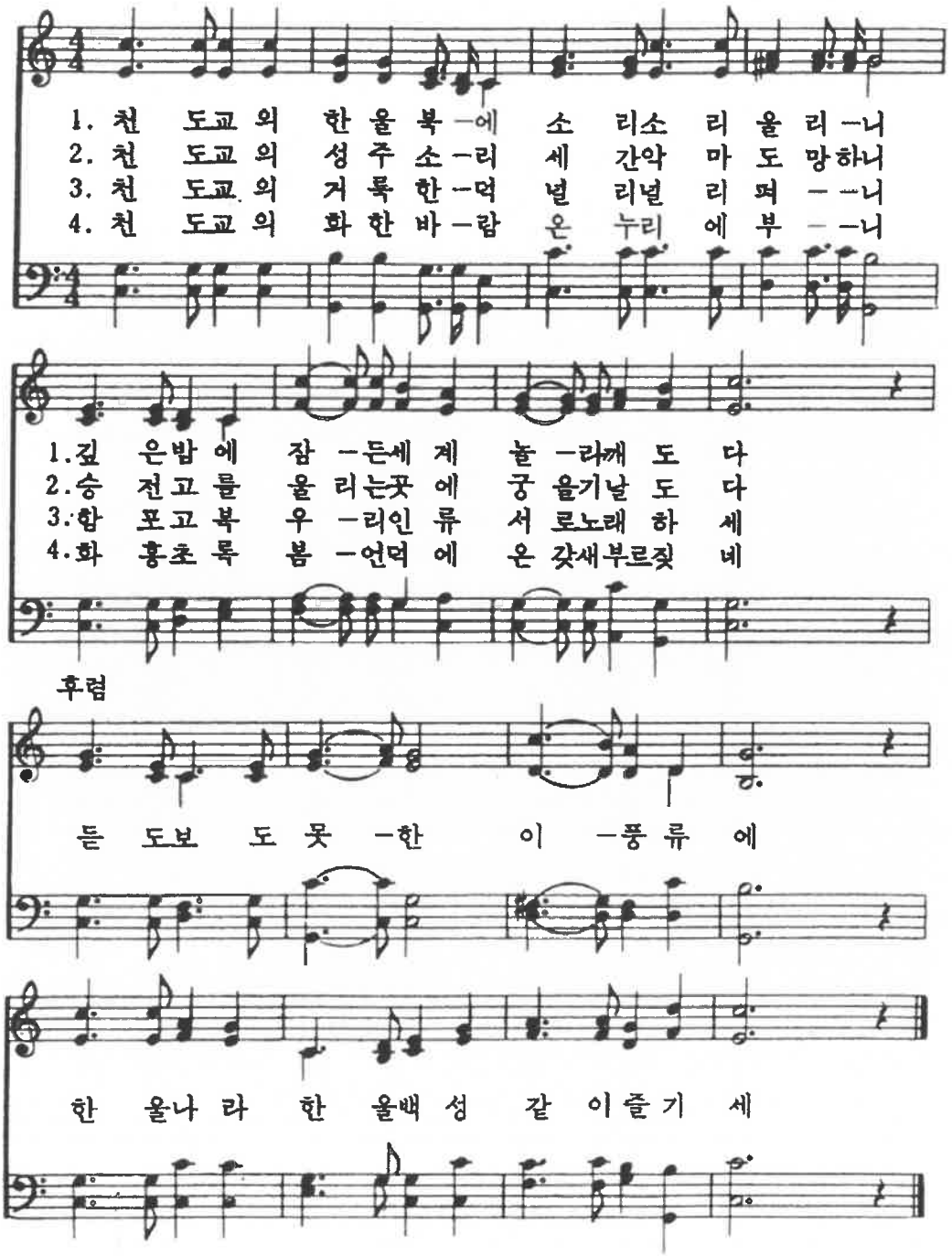
새해에는 지난해 못다 이룬 과업을 반성하여 도전과 응전의 자세로 솔선수범하면서 신앙을 통한 봉사

정신을 발휘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괴질이 종식되고 편안하고 희망적인 한해가 될 수 있기를 한울님께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3년 1월 1일

교령 **송 범 두** 심고

제17장 공 락 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 -에 소 리소 리 울 리 -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 -리 세 간악 마 도 망하니
3. 천 도교 의 거 룩 한 -덕 넬 리넬 리 펴 -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 -람 온 누리 에 부 - -니
1.깊 은밤 에 잠 -든세 계 놀 -라깨 도 다
2.승 전고 를 울 리는곳 에 궁 을기날 도 다
3.함 포고 복 우 -리인 류 서 로노래 하 세
4.화 홍초 록 봄 -언덕 에 온 갖새부르짖 네
후렴
듣 도보 도 못 -한 이 -풍 류 에
한 울나 라 한 울백 성 같 이즐 기 세

천도교중앙총부

우)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번지(경운동88)

www.chondogyo.or.kr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